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한국학 정수, 탄허학에 있다

주제 : 한국학 새 지평으로서의 탄허학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



한국 근현대 선지식 탄허 택성(呑虛宅成, 1913~1983) 스님. 탄허 스님은 불교와 유교, 도교 등을 회통하는 사상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광대한 그의 사상은 후학 문광 스님이 개창한 '탄허학'으로 연구 지평이 만들어졌다.

탄허, 선 · 화엄 바탕으로 사상 회통
간화선 · 교학 · 노자 등은 연구 과제
김제 탄허기념관 미륵사상 연구지로

지난 2013년은 탄허 택성(呑虛宅成, 1913~1983) 선사의 탄신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많은 행사와 학술대회가 있었다. 필자는 탄허기념박물관에서 '탄허학의 골수와 종지' 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탄허학' 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당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탄허학 연구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하며 '20세기 한국학의 정수는 탄허학' 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한류의 뿌리가 되는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한국학(韓國學)의 한 학인(學人)으로서 그 해답을 '탄허사상(呑虛思想)' 에서 찾고자 한다. 한국인의 정신을 고려시대까지의 불교역사 전체를 버려둔 채 조선 유교 500년에서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국인의 사상을 수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교의 선사상이나 화엄사상 하나로만 일축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한국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담보하면서 한국 정신의 총화를 죄다 함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한국사상의 정수를 20세기 한국의 실존인물에서 상징적으로 찾아본다고 할 때 필자는 그 하나의 해답으로 탄허 스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간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허학은 한국불교학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학의 중심 학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의 학문이 착종하고 융합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가야할 21세기는 바야흐로 탄허학의 확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탄허학 정리와 저술 현황

탄허의 핵심사상은 선(禪)과 화엄(華嚴)을 바탕으로 동서고금의 모든 학술체계를 회통하는 것이다. "천하에 무이도(無二道)요 성인에 무양심(無兩心)"이라는 스님의 대표적 언명에서 보듯 그의 대표사상은 불이(不二)의 심성학(心性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허는 모든 학술의 근간은 이문(二門)의 일심(一心)으로의 회통(會通)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탄허의 회통사상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는 화엄의 성기(性起)와 연기(緣起)이다. 성기사상은 선사상과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탄허의 종지(宗旨)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그가 가장 중시한 화엄학의 요체는 사법계(四法界)로서 언어 ·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교학과 학술의 내용은 이 화엄사법계의 도리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불교의 교학체계는 사법계를 중심으로 한 진공묘유의 중도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허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심(心)' 과 '성(性)' 두 글자였다. 그는 모든 학문을 '성(性)자리' 라는 한 단어로 회통시키는 회통조사(會通祖師)였다.

탄허는 유 · 불 · 선 삼교경전의 현토 · 역주 · 해설 · 강설의 방면에서는 20세기 한국학의 영역에서 정액상(頂額上)의 위치를 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저술의 목록과 숫자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도 말이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그 숫자를 확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탄허의 모든 저작은 총 '20종 80권' 이다.

탄허학의 연구과제

앞으로 탄허학이 정립되고 한국학의 한 분야로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탄허사상 연구에 몰입해 주어야 한다. 분야별로 간략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탄허의 선사상(禪思想)에 있어서 그의 간화선관(看話禪觀)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님은 다른 번역과는 달리 대혜종고의 〈서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석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私記)' 를 직접 썼음을 밝히고 있다. 제목 자체가 '대혜보각선사서병입사기(大慧普覺禪師書幷入私記)' 로 기존 번역의 체계인 정본-조본의 주석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고찰과 인물소개 정도만 기존의 사기를 준했으나 종지(宗旨)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기를 참조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는 스승인 한암 선사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간화선의 종지를 몸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탄허가 스승 한암으로부터 어떤 화두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무자화두(無字話頭)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으나 아직 확실치는 않다.

이와 함께 탄허는 묵조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배척하지 않고 〈묵조명〉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 강의 녹음을 발굴하여 책으로 엮을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가집〉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하면 탄허의 넓은 선사상의 스펙트럼이 밝혀질 것이다.

탄허학의 연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화엄경〉을 비롯한 치문 · 사집 · 사교의 번역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스님은 번역과 주석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헌들을 낱낱이 검토하여 스님의 주해를 한 데 모았을 때 그의 교학사상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엄학의 경우 〈통현론〉과 〈청량소〉를 모두 번역하여 실었고, 의상 · 보조 · 균여 · 설잠의 화엄학에도 정통해 있었으므로 탄허의 화엄사상을 다시 처음부터 심입하여 연구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1975년에 문을 열었던 '화엄학연구소' 가 다시 발족되어 탄허본 〈화엄경〉에 대한 윤독회와 연구가 이어지길 발원한다.

현재 확보된 탄허 스님의 강의테이프 400여 개의 정본화와 DB작업, 녹취와 교정작업이 활발히 지속되어야 하겠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탄허선사강설전집〉 교정의 경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스님의 강의내용이 문헌화된다면 한문불전의 강학전승과 동양학의 융합적 연구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탄허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탄허의 회통사상 연구는 '탄허학' 의 중심 주제에 해당한다. 현재 탄허가 짓고 쓴 고운 최치원 선생의 비문이 지리산 섬진강 어느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탄허는 삼교회통의 최고 대가로 최고운 선생을 거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쌍계사 진감국사 비문' 에서 밝힌 "공발기단 석궁기치(孔發其端 釋窮其致)"라는 문장은 공자와 석가를 논한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탄허가 직접 쓴 최치원 선생의 비문이 발굴된다면 그의 삼교회통사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문장들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탄허의 노장학은 앞으로 연구할 거리가 무척이나 많다고 할 것이다. 〈도덕경〉의 경우에는 31가의 주석을, 〈장자〉의 경우에는 32가의 주석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으며, 〈장자〉의 경우에는 총146회에 걸쳐 자가의 주석을 설파해 두었다. 고금의 노장학 주석 가운데 선별하여 주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밝혀둔 것이 바로 탄허의 노장사상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동양학계의 강호 제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탄허의 역학사상은 향후 탄허학의 주요부문으로 자리 잡아야 할 분야이다. 스님이 불교의 화엄학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주역〉과 〈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사상이다. 〈주역선해〉의 역해에 나타나 있듯이 탄허는 유학의 핵심이 되는 정 · 주의 의리역학과 소강절로 대표되는 상수역학, 그리고 김일부의 정역학(正易學)에 이르기까지 역학방면에 깊은 안목을 갖추었던 대가였다.

476자로 이루어진 〈정역〉에 대한 연구는 그의 미래예견의 중심이 되었던 텍스트였으며, 지구 전체와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탄허 미래학의 산실이었다. 이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탄허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 탄허의 탄생지인 김제에 생가터를 복원하고 탄허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불사가 완성되면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을 받은 부친 김홍규 옹과 국민훈장(문화훈장)을 받은 스님 두 분을 선양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 건립될 김제의 탄허기념관은 금산사 미륵성지와 함께 한국의 미륵사상 연구의 본거지이자 후천개벽사상의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젠 탄허학(呑虛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뜻 깊은 이 법연의 자리에서 감히 발원하며 제안하는 바이니 21세기 한국학을 선도할 '탄허학' 을 하루 속히 출범시키자.

문광 스님은…2001년 해인사 원당암에서 출가한 문광 스님은 2002년 통도사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봉암사 태고선원,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정진했다. 출가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출가 후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며 수학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중국고전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서 탄허 스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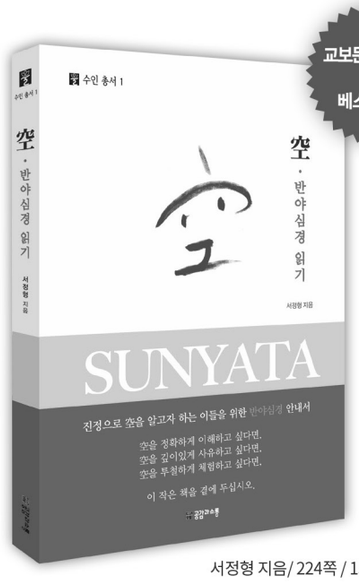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는 11월 29일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과 추계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 탄허학술상 수상자로는 탄허 스님 연구로 첫 박사학위를 받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 직후에는 문광 스님의 '한국 새 지평으로서의 탄허학'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스님의 논문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신성민 기자

진정으로 空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반야심경 안내서

空 · 반야심경 읽기

교보문고, yes24 종교 베스트셀러!



20년 간 불교철학을 강의해 온 불교학자의 空에 관한 담론!
空을 통해 불교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서정형 지음/ 224쪽 / 13,000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空과 불교의 사상을 집약했다. 불교의 핵심인 空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반야심경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다. - 한국일보

이 책은 空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최고의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준다. - 불교신문

저자 서정형 –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 이 책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자의 이메일(naruppe@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소통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M빌딩 302-3호 | 전화 031-942-9472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